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정보활용 복지전문가 양성

올해 새학기에 개원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은
 첨단 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지식산업화 시키는 이색전문대학원이다.
 인터넷 등 정보활용능력을 통하여 복지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 대학원은
 행정정보학과, 문화산업정보학과, 마약범죄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개 학과와 6개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참빛관

“21세기는 두가지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지식사회가 그 하나요, 인간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복지사회가 그 두번째입니다.” 권기성 대학원장의 말처럼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한 ‘정보’와 ‘복지’.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은 두개념을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곳이다. 정보란 흔히 의미가 부여된 data를 말한다. 보다 확대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는 ‘정보지식’이라 풀어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앞의 경우만을 가리켜 ‘정보’라 하고, 이러한 정보에 가치가 개입된 것을 ‘지식’이라 한다.

복지에 대한 이해 역시 조금씩 다른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부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제도나 장치를 포괄하는 데까지 다양하다.

“저희가 연구하는 정보복지는 넓은 의미의 정보와 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정보지식을 생산하고 이용하며 산업화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까지 활용하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인간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복지, 예컨대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을 통하여 복지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가, 복지를 지식산업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배양하는 곳이 정보복지대학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관련 대학원이 대부분 전자, 통신, 컴퓨터 등 자연과학분야, 공학적

·기술적인 분야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공학관련학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보복지대학원은 첨단 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지식산업화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마약범죄정보학과 등 4개학과 개설

현재 국내 정보복지대학원은 광운대학교 뿐이며, 인문사회과학분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이 곳 뿐으로 상당 관련 전공을 설치하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각종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 개원, 첫 신입생을 받은 정보복지대학원에는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에 각각 ‘행정정보학과’, ‘문화산업정보학과’, ‘마약범죄정보학과’ 등 정보지식 관련학과와 사회복지, 행정상담, 종교상담을 전공으로 하는 ‘사회복지학과’ 등 4개 학과와 6개의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행정정보학과나 문화산업정보학과는 정보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벤처산업화시키는 능력을 배양한다. 마약범죄정보학과에서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마약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인력의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졸업생들은 마약범죄 수사, 마약범죄 예방, 마약중독자 치료 등 마약 관계 전문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정보, 문화산업정보, 마약범죄 전공자들은 정보지식에 관한 전문인으로서 다양한 정보지식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정보능력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수업전경(김중현교수)

행정정보사, 행정관리사, 문화산업정보사, 창업전문사, 기록상담사, 행정상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이외에 정보분야 연구원이나 정보분야 기업체 및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학 교수 또는 각종 교육기관 강사, 이벤트 기획사로 일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단순히 소외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복지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상담, 종교상담을 전공하여 복지 전문 능력을 갖춘 졸업생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 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상담기관이나 종교단체, 정부나 병원 등의 복지기관의 상담원, 대학 교수나 각종 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거나 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의 길도 열려 있다.

정보복지 고위정책과정도 개설준비

정보복지대학원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복수 전공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권기성 대학원장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정보와 복지 두 영역이 보다 자연스럽게 상호 통합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지식관련 교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지식산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정보관련학과 학생들 역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정보지식 능력을 키워 지식을 산업화시키는 데까지 교육한다는 것이 정보복지대학원의 목표다. 학생들은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스트레스

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정보복지대학원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회 저명인사나 각계 전문인을 초청하여 초청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정보복지 고위정책과정을 통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복지 관련 주제의 공개 강연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는 조직 속에서의 사람관리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쳐 고민하게 되더군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역시 이러한 이해와 해결과정 속에서 출발한다고 믿는 권기성 대학원장은 결국 사회의 변화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여 인간의 문제를 푸는 길, 그리하여 행복한 삶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대해 고민하다가, 학문적으로 ‘정보복지’라는 분야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을 마친 그는 정보복지대학원장으로, 한국행정사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와 지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산업화시키는 정보지식사회로 이동되고 있는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세계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경쟁의 장’이라고 말하는 권기성 대학원장은 경쟁에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지식 능력을 갖추고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사회에서는 경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쟁 속에서의 행복한 삶이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인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는 것입니다.”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와 경쟁사회가 야기하는 문제는 능력의 유무나 경쟁에서 이겼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직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정보복지대학원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연구하며 능력을 키워 자신과 사회를 위해 큰 일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

장미라<본지 객원기자>